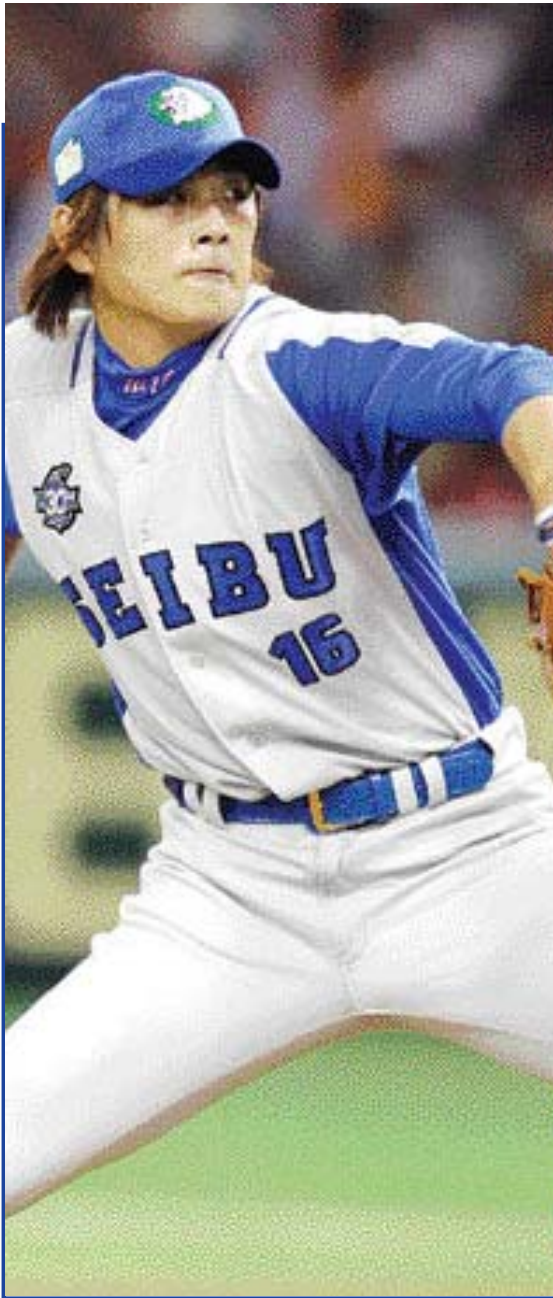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 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월요일정기선배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 프로야구 아시아시리즈 오늘 개막

### ◀ 일본 와쿠이 에이스 대결 이뤄질까? 한국 김광현 ▶

한국과 일본 신에 에이스 대결이 13일 시작되는 프로야구 아시아시리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대표팀 세이부 라이온스가 에이스 와쿠이 히데아키(22)를 아시아시리즈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마운드의 자존심 김광현(20·SK)과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스포츠조선과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스포츠 전문지들은 와쿠이의 결승전 선발 등판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해 퍼시픽리그 다승왕인 우완 와쿠이는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한국과의 준결승 때 일본의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 한국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와쿠이는 이날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2점 홈런포에 2-5로 승부가 기운 8회 1사후에 등판, 3분의 2이닝동안 1안타 1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광현은 이날 선발로 나서 8이닝 6안타 2실점(1자책)으로 '일본킬러'의 명성을 확인하며 승리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두 선수는 나란히 준결승 마운드에 오르긴 했지만 등판시기가 엇갈리면서 맞대결은 성사 되지 않았다.

아시아시리즈에는 한국·일본·대만·중국 4개국이 참여해 우승경쟁을 펼치게 되지만 한국과 일본이 결

#### 결승 맞대결 여부 최대 이슈 베이징 올림픽팬 '김광현 승'

■김광현 최근 2년간 성적				
연도	평균자책	승	패	탈삼진
2007년	3.62	3	7	52
2008년	2.39	16	4	150

■와쿠이 최근 2년간 성적				
연도	평균자책	승	패	탈삼진
2007년	2.79	17	10	141
2008년	3.90	10	11	122

승전에서 만날 것으로 보여 우승컵의 향방은 김광현과 와쿠이의 대결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와쿠이는 올림픽에서 한국을 상대로 인상적인 퍼칭을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세이부는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에이스. 2005년 세이부엔 입단한 와쿠이는 2년차이던 2006년 12승으로 두자릿수 승수를 쌓은 뒤, 2007년에는 1번의 완봉승을 포함 11차례 완투로 17승을 챙기는 괴력을 발휘해 퍼시픽리그 다

승왕에 오르기도 했다.

올 시즌 3.90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11패에 그쳤지만 요미우리과 맞붙은 일본 시리즈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선발과 계투를 가리지 않고 등판해 1승1패를 거뒀다.

지난해 아시아시리즈에서 눈부신 퍼칭으로 '일본킬러' 명성을 얻은 김광현은 올 시즌 데뷔 2년만에 다승왕(16승)·탈삼진왕(150개)에 이어 MVP를 차지하며 한층 견고해졌다.

그러나 김광현의 행보는 미지수다. 지난해 주니치 드래곤즈에게 양보했던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갈아온 SK는 1차전과 결승전을 놓고 김광현을 저울질해왔다.

김광현이 SK의 에이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거운 결승전 등판에 좀 더 쏠린다. 하지만 김광현이 지난해 예선과 결승에 모두 등판했던 것처럼 1차전에서 선발로 나선 뒤 결승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올림픽 '영광 재연'과 '실욕'을 놓고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두 에이스의 어깨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박지성 '골대 불운' 시즌 2호 골 놓쳐

### 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 8강 진출을 이끌었다.

맨유는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진 2부리그(챔피언십)의 퀸스 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와 2008~2009 칼링컵 4라운드(16강전)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카를로스 테베스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32강전인 3라운드에서 미들즈브러를 꺾고 올라온 맨유는 8강에 진출하며 2005~2006 시즌 이후 이 대회 우승을 노리게 됐다.

지난 주말 아스널과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선발로 나와 90분을 모두 뛰었던 박지성은 사흘 만에 또 풀타임을 소화하며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최전방에 테베스를 놓고 투이스 나니와 박지성을 양쪽 측면 공격에 배치한 맨유는 경기 내내 공세를 펼쳤지만 수비로 일관한 QPR의 골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전반 14분 테베스가 아크 왼쪽에서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날린 것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맨유는 전반 23분 안데르손이 아크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리는 등 QPR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무위로 끝났다.

후반 들어서는 박지성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후반 5분 박지성은 아크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강도가 약해 골키퍼 가슴에 안겼다.

박지성이 시즌 2호골을 터뜨릴 뻔한 아까운 장면은 후반 11분에 나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하파엘 다실바가 QPR 수비수를 따돌리고 페널티박스 오른쪽으로 밀어쳤고, 박지성은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볼은 왼쪽 골대 상단을 감타하고 튀어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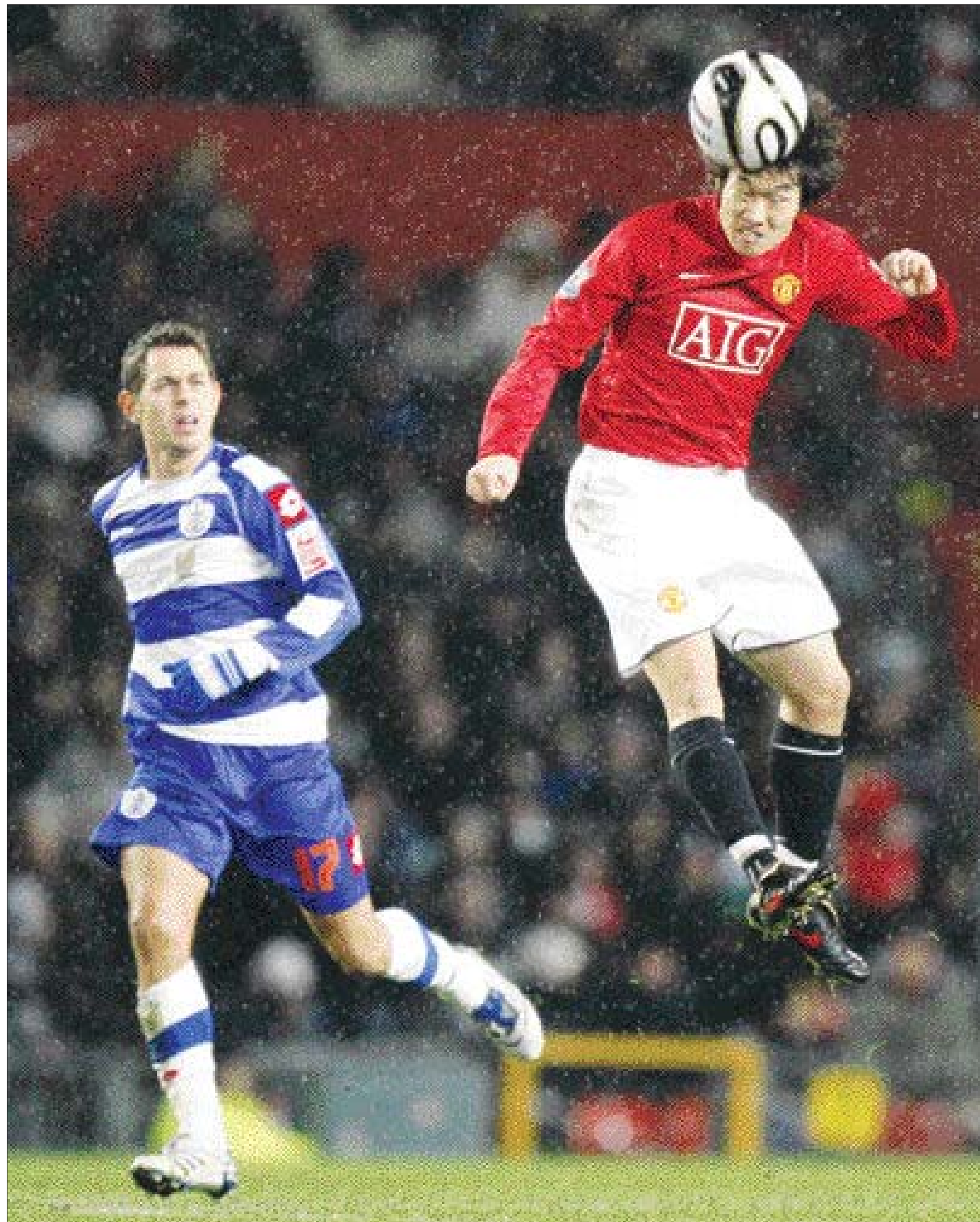
이후에도 쉽게 QPR 밀집수비를 뚫지 못하던 맨유는 후반 27분 미드필더 포세봉 대신 공격수 대니 웰벡을 투입한 뒤 공격에 몰입구를 찾았다.

웰벡은 그라운드에서 나선 지 2분 만에 나니가 넣어준 볼을 골 지역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다 수비수 반칙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를 테베스가 침착하게 차 넣으며 승부를 갈랐다.

또 다른 16강전에서 아스널은 위건 어슬레틱을 3-0으로 완파했다.

이밖에 프리미어리그 스토크시티는 4부리그 로더럼 유나이티드를 2-0으로 완파했고, 챔피언십 더비카운티는 3부리그 리즈 유나이티드를 2-1로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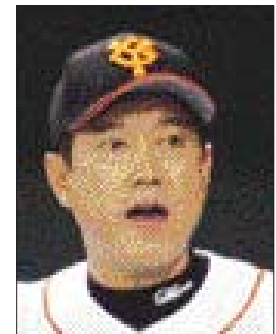
/연합뉴스



1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린 2008~2009 칼링컵 4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챔피언십)의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경기에서 맨유의 박지성(오른쪽)이 퀸스파크의 공격수 리 쿡에 앞서 헤딩볼을 때내고 있다.

/연합뉴스

## 日 요미우리 하라 감독 3년 더 사령탑 맡는다



이승엽(32)에게 우호적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하라 다스노리(50·사진) 감독이 3년 더 팀을 이끌게 됐다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기가 12일 보도했다.

와타나베 쓰네토(82) 요미우리 회장과 다카하나 다쿠오(69) 구단주는

11일 도쿄 요미우리신문사에서 하라 감독에게 1년 시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3년 더 지휘봉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2002~2003년에 이어 2006년부터 다시 요미우리 사령탑을 맡은 하라 감독은 2011년까지 모두 8년 간 지휘봉을 잡는 셈이다.

구단 수뇌부는 하라 감독이 지난 3년 계약기간 중 두 번이나 센트럴리그에서 우승했고, 올해 사카모토 하야토(20) 등 젊은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라 감독이 다시 사령탑을 맡는 게 확실해지면서 올 시즌 최악의 부진에 빠진 이승엽도 일단 2년간 남은 계약기간에 구단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구단 측은 하라 감독이 두 차례 리그 우승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두 번 다 일본시리즈 우승은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젊은 선수를 길러내 일본 정상에 서달라"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에선 이승엽의 내년 활약 여하에 따라서는 하라 감독과 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우즈베크에 덜미...결승행 좌절

### 亞축구 U-19 선수권대회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 오후(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크스탄과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4강에서 전반 17분 세르조드베크 카리모프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2004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통산 11번째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은 비록 4년 만의 정상 탈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4위 안에 들어 내년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권은 획득했다.

/연합뉴스